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샵 개최

– 풍력발전 전문가 80여명 참석, 성황리에 마쳐

대한전기협회는 7월5일부터 6일까지 제주도 라마다호텔에서 박천진 대한전기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전, 연구기관, 풍력발전사업자 등 관련 핵심 실무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7 풍력발전 표준화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샵은 IEC/TC88 풍력발전 국제표준화에 대한 정보교환과 TC88 전문위원들의 국제표준화 활동보고 및 국제현황 그리고 대응방안 구축과 관련해 국내 풍력관련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 모색과 의견을 수렴 할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대한전기협회가 주관하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과 에너지관리공단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풍력발전 표준화 현황 및 추진계획(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준호 연구사),
IEC-TC88/MT22(풍력발전 인증제도) 활동보고(한국선급 김만응 박사),
IEC-TC88/WG3(해상풍력터빈 설계기준) 활동보고(인하대학교 손충렬 교수),
풍력발전시스템의 낙뢰보호(의제전기설비연구원 정용기 원장),
풍력시스템의 국가인증 추진방향(에너지관리공단 정수남 실장),
풍력터빈 적합성 시험 및 인증을 위한 IEC체계(IEC WT01)(제주대학교 허종철 교수),
신재생 에너지 발전 인허가 절차(대한전기협회 김종서 팀장) 등 다양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밖에 경남호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장이 '풍력에너지 현황 및 전망' 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다음은 주제발표 내용중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김준호 연구사가 밝힌 주제발표 요지이다.

▲ 풍력발전 표준화 현황 및 추진계획

정부의 풍력 표준화 목표는 국산 풍력설비의 신뢰성 확보와 표준기반을 확충하여 수출산업화를 지원하는데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의 연계를 통한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하고 △ 국내 풍력설비의 수출산업화를 지원하여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국가표준을 확립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과 부합된 국가표준(KS)을 적용하고 이의 일원화를 위해 풍력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을 연계시킬 방침이다.

이밖에 수출산업화가 가능한 품목을 중심으로 우리 기술을 제안, 반영시키고 국제표준 전문가를 발굴, 육성하여 우리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

풍력발전의 표준화 추진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가속화시키고 풍력분야의 선진 기술력을 확보하며 풍력분야 산업활성화로 이고계 육성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는 등 많은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본다.